역설 경영: 대비를 통한 조직모순의 재배치 -안정과 변화의 이분법을 넘어서-*

김 영 진 (경남과학기술대)

【한글요약】

이 논문은 리드(Reed; 1997)의 조직이론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잠재적으로 조직이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며, 특히 안정과 변화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개념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Reed는 세 가지 범주로 조직이론을 분류한다. 즉, 균형기반이론(equilibrium-based theory), 과정기반이론(process-based theory), 재귀기반이론(recursivity-based theory)이다. 재귀기반이론은 안정과 변화를 상보적 관계로 본다. 이에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가 재귀 이론과 연관이 있으며, 결합체 개념이 안정과 변화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조직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안정과 변화에 대한 철학적 기반으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제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역설, 안정, 변화, 현실적 존재, 대비.

---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54-2011-1-B00024)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는 화이트헤드(1861-1947)의 유기체 철학이 잠재적으로 조직이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특히 안정과 변화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개념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조직의 성공은 효율성과 혁신이 모두 요구된다. 달리 말하면 안정과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조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정과 변화에 대한 조직 연구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양자의 속성에 대한 입장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은 조직이론가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이다. Collins & Porras(1994)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리켜 '선택'(either-or)의 시기가 아니라 '그리고'(and)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론이 '그리고'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 논의의 철학적 관점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본 논문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로 조직이론을 연구하는 철학적 토대는 '과정'철학이다. 제임스,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루만 등이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특히 화이트헤드는 최근에 와서 조직이론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철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의 철학은 조직이론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식창조 이론의 창시자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Nonaka는 『창조적 루틴』(2010)이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장으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요약을 한다. "이 책의 세계관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세계관과 일치한다"(2010: 31).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경영은 지식을 실체로 다루었다. 하지만 이제 근본

적으로 지식으로 실체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과정, 즉 '루틴'(routin)으로 이해해야 한다"(2010: 31). 이때 루틴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사건이나 현실적 계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Nonaka는 자신의 지식창조 이론의 인식론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서 찾아낸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Nonaka 자신이 조직이론과 지식창조에서 이룩한 평생 작업이 화이트헤드의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정 패러다임이 오늘날 조직이론과 지식 창조이론의 핵심적인 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화이트헤드 철학을 조직이론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그 추상성이 높기에 조직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Jones & Munro(2005)는 조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조직의 이론(theory of organization), 조직을 위한 이론(theory for organization)이다. 첫 번째 집단의 조직 이론가들은 Burrell, Clegg, Cooper, Knight & Willmot, Weick 등이며, 두 번째 집단의 조직이론가들은 Bauman, Gorz, Luhmann, Negri 등이며, 세 번째 집단의 조직이론가들은 Butler, Deleuze, Agamben, Latour 등이라고 한다. 첫 번째 집단은 조직이론을 연구하는 집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사상가들이며, 두 번째 집단은 그 내용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응용을 하는 사상가 집단이며, 세 번째 집단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소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사상가 집단이다. 화이트헤드 역시 이 세 번째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화이트

헤드의 사상을 조직이론에 적용을 하는 작업은 그 추상성에 의해 매우 피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는 Luhmann이 화이트헤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그 응용 가능성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추상성을 낮추는 방법이기도 하고, 루만을 연구한 조직이론가에게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이해할 수는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귀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와 '대비'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Burrell & Morgan(1990)은 "특정한 패러다임에 속하게 되면 특정한 방법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28)라고 한다. 각 시대마다 조직을 보는 패러다임이 다른 이유는 그 철학적 전제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조직은 그 시대의 인식론과 존재론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 시대를 지배해 온 조직이론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어떤 존재론과 인식론의 전제 속에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Reed(1997)의 조직이론에서 제시한 이해의 틀에 근거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는 조직이론을 균형기반이론(equilibrium-based theory), 과정 기반이론(process-based theory), 재귀기반이론(recursivity-based theory)으로 나눈다. 균형기반이론은 안정된 존재를 기초로 삼는 조직이론이며, 이는 기존 체계이론과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이 되는 인식론이다. 이것은 실체 철학을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과정기반이론은 안정 보다는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론이며, 주체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조직을 보고자 한다. 이것은 Bergson과 같은 과정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조직이론이다.

이에 반해 재귀기반이론은 안정과 변화를 모두 중요하게 보며, 한쪽에 편향된 방식으로 조직을 보지 않는다. 조직이론에서는 양면성 조직이론이 안정과 변화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이론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양면성의 조직이론은 구조와 사건을 상보적으로 보는 재귀기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대체로 우리는 루만의 사회학을 재귀이론의 대표적 이론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루만보다는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재귀기반에 대한 철학적 전제를 제공해볼 것이다. 루만이 말하듯이, 재귀기반을 선구적으로 연구한 사상가는 화이트헤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하게 논의를 해볼 것이다.

안정과 변화에 대한 조직이론과 철학적 전제와의 관련성을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활용'(exploitation)과 '탐험'(exploration)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이홍과 김찬모(2004)에 따르면, 활용은 조직의 합리성, 수단성, 경제성, 및 예측성을 강조하는 안정적 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탐험은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변화적 속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활용을 안정의 속성으로 보고 탐험을 변화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의미를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조직과 그 조직의 철학적 전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두 속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나누어진다. 탐험과 활용, 즉 변화와 안정은 배제적 관계인가? 양립적 관계인가? 그리고 그 속성은 하나의 존재 속의 두 속성인가? 각 존재마다 각각의 속성을 부여받은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탐색해 가는 방식이 이 논문의 전개 과정이다.

2. 균형기반이론

1) 기능주의와 상황이론

조직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조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균형기반이론이다. 즉, 균형기반이론은 조직에서 안정을 통해 균형을 확보하려는 이론이다. 대체로 기능주의 조직이론을 균형기반이론이라고 한다. Burrell & Morgan(1990)에 따르면, 전통조직이론은 '기능주의'(functionalist)에 따른 조직이론이라고 하며, 이것은 증거에 근거한 실증주의 조직이론이다. 대개 '도구적 관점'(tool view)(Perrow, 1979)에 의해 전개되는 것으로, Taylor(1967)의 과학적 관리법, Fayol(1949)의 통제적 방법, Weber(1947)의 관료적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우리가 Roethlisberger과 Dickson(1939)이 보고한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 및 사회적 요인이나 비공식적 역할이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고전적 관리론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 역시 객관주의적 틀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이다. 즉 "물리적인 작업조건과 직원의 업적과 능률간의 인과관계"(Burrell & Morgan, 1990: 159)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 조직을 모두 기능주의 조직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Burrell & Morgan(1990)은 이 이론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은 사회적 사상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또한 그것은 그 지향에 있어서 극히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형성하는 식으

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종종 문제지향적이다. 즉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다. 대체로 그것은 사회변동의 기초로서 사회공학철학에 확고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의 질서, 균형 및 안정성의 이해와 그러한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Burrell & Morgan, 1990: 31).

하지만 호손 연구는 특히 파레토의 균형 모형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의사결정의 참여와 책임이 조직에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기계적 모형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균형모형에 근거한 호손 연구는 "그 체제는 미리 규정된 방법으로 매우 좁은 제약 안에서 변화를 허용할 뿐"(Burrell & Morgan, 1990: 168)이며, "사물의 정상적 상태란 협력과 조화로서 특징지어지며 그러한 일원적 체제로서 조직을 다루는 것"(Burrell & Morgan, 1990: 169)이다. 따라서 정태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본다는 점에서 고전적 관리법과 호손 연구는 동일한 철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계적 모형과 유기적 모형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모두 요구되는 모형이다. 이에 Lawrence & Lorsh(1967)는 『조직과 환경』(Organi- zation and Environment)에서 기업의 성공은 특정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산업처럼 동태적인 분야에서의 조직은 고도로 분화되고, 고도로 통합되어야 하는 반면에 용기(container) 산업에서 조직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덜 분화된 조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1967: 10). 우리는 전자를 유기적 조직이라고 하며, 후자를 기계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적 조직은 안정 혹은 활용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

고, 유기적 조직은 탐험적인 변화지향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Burrell & Morgan, 1990: 196-197). 이를 통해 조직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기계적 모형은 안정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며, 유기적 모형은 변화의 속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물론 균형기반이론 내부에서 본다면, 그 한계가 있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다만 그 두 가지 모형의 기본 속성은 달리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중요한 구별지점이다.

상황이론은 두 속성이 양립불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위에 형성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탐험에 기초한 변화와 활용에 기초한 안정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며 독립적이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에서 서로 배타적인 속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이들 두 속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상황이론의 핵심이다(Van de Ven & Drazin, 1985; 이홍· 이현, 2009: 102). 이는 Lawrence & Lorsh(1967)가 말한 것처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속성을 한 조직 내에서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 것이다.

상황이론에 따르면 탐험과 활용은 조직 환경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Ducan, 1976). 따라서 상황이론에서는 환경이 안정적 상태에서 불안정적 상태로 변함에 따라 조직은 기계적 특성을 버리고 유기적 특성을 갖는 조직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홍 · 이현, 2009: 102). 그러므로 상황이론은 '효율성-혁신', '안정-변화', '공식성-비공식성', '집권화-분권화' 등과 같은 서로 대립적인 경향성들을 양자택일의 관계, 즉 딜레마로 인식한다

(Ford & Backoff, 1988; Evans & Doz, 1992).

2) 철학적 전제와 비판적 조망

균형기반이론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안정적 존재를 가정하는 철학적 이론에 근거해 있다. 실재 세계에서 대상들의 변화는 결국 그 대상의 이데아를 통해 고정되고 안정된 외부적 준거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기반이론의 핵심적인 철학적 가정이다. 따라서 안정이라는 속성과 변화라는 속성은 결코 동일한 이데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각각의 대상에 해당하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황이론이 양자택일의 관계를 딜레마로 인식하는 것은 고대 서구 논리학 및 실체설 및 분류학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황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이라는 세 가지 기본법칙에서 출발한다. 이 논리는 A와 not A가 공존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해 버린다(윤세준· 김상표, 1997).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결함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무시하고 형이상학적 사고를 명사와 형용사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AI 276). 또한 그의 존재론은 "제일 실체들의 이접(disjunction)에 관한 설"(AI 224)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의 분류학은 유(genera), 종(species), 아종(sub-species)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서로를 배제시키는 분류법"(AI 231)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전제들로 인해 균형기반이론은 안정과 변화라는 두 속성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사유의 특징은 '이다'의 사유로 "현실의 사물과 사물 사이의 상호 연관을 전혀 무시"(AI 224)하는 것이다. 즉 '그리고'의 논리가 처음부터 배제

된 것이 상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관한 단순정위(simple location)의 학설도 그 영향을 크게 미쳤다.

> 하나의 물질 조각이 단순 정위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그 물질이 지니고 있는 여러 시공적 관계를 표현하려 할 때, 다른 공간의 영역과 다른 시간의 지속에 대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본질적 관련도 떠나서, 그 물질은 공간의 한정된 영역 안에, 그리고 어떤 한정되고 유한한 시간의 지속 전체에 걸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다는 것이다(SMW 72).

이와 같은 단순정위 시간 이론은 칸트의 인식론에 그대로 적용되며, 주체와 대상은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는 고립된 존재로 머물게 된다. 또한 주체는 하나의 속성 외에 다른 속성은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전개된다. 이와 같은 사유가 다른 학문 영역에도 적용되면서, 근대의 패러다임은 거의 '관계'를 연장(외연량)의 방식으로만 설명하게 되었다. 베르그송 역시 칸트의 문제점은 시간을 동질적 장소로 간주한 것에 있다고 한다.

> 칸트의 잘못은 시간을 동질적 장소로 간주한 것이었다. 그는 실재 지속이 서로 내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졌으며, 지속이 동질적 전체라는 형태를 띨 때 그것은 지속이 공간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공간과 시간 사이에 확립한 구별 자체는 근본을 파헤쳐 보면 시간을 공간과 그리고 자아의 상징적 표상을 자아 자체와 혼동한 것으로 귀착된다(Bergson, 2011: 283).

칸트의 시간은 결국 수학적 시간이며, 분할 가능한 양적 시간이기에 공간화된 시간인 것이다. 이것은 오성을 통해 시간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성은 그 역할이 안정적인 요소 위에 작용하는

것"(Bergson, 1993: 235)이기 때문이다. 안정성을 관계 안에서 아니면 사물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성의 귀착점인 과학적 부호주의"(Bergson, 1993: 235)로 시간을 본 결과이다. 베르그송이 볼 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보편 수학이 과학이며", "보편 수학의 꿈은 그 자체 플라톤주의의 유물"(Bergson, 1993: 238)의 재현이다. 균형기반이론이 균형과 안정을 탐색하는 조직이론이라면, 그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었던 "자연 속에 미리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미리 공식화까지 되어 있는 순수한 과학"(Bergson, 1993: 238)의 전제 위에서 작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황적합이론의 철학적 근거는 근대 철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칸트는 '이접'(disjunction)에 대한 입장을 배타적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 즉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속성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어떤 사물을 규정함은 신에서 출발하며, 신은 모든 가능한 술어들의 집합으로써 제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 각각의 사물을 완결적으로 규정함은 이 실재성 모두를 제한함에 의거한다. 실재성의 몇몇은 그 사물에 부여되고, 나머지 것은 배제되니 말이다. 이것은 선언[이접]적인 대전제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와 합치하고, 소전제에서 이 분할 항들 중 하나에 의해 대상을 규정함과도 합치한다. 그러기에 이성이 모든 가능한 사물들을 규정하는 일의 기초에 초월적 이상을 두는 이성 사용은 선언적[이접적] 이성추리들에서 취하는 태도와 유사하다(Kant, 2006: A577/B605).

논리학에서 이접의 논리는 대상에 하나의 속성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칸트가 볼 때, 이것이 신에 의해 규정된 사물의 방식이며, 이

에 반해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부여하는 것은 사물의 완결적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 역시 신이 세계를 만들 때, 상호 모순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선택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신이 상호 모순적인 것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이접의 배타적 용법은 조화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라이프니츠의 신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프니츠는 신에 의해 부과된 예정조화의 방식을 통해 "모나드 사이의 간접적인 교통"(AI 225)이 있다고 말했다. 즉, "신과의 교통에 의해 근원적으로 부여받은 그 성격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전개"(AI 225)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상황적합이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이접의 논리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과 같은 실체 혹은 존재 철학의 전제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론은 유기적 모형과 기계적 모형을 시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 형태에서 각각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조직에서 유기적 모형과 기계적 모형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한편 베르그송과는 다른 관점에서 상황이론을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우리는 수학의 전개과정을 통해 속성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르게 계량이나 거리와 관계없이 전개되는 사영기하학 혹은 교차 분류학(the science of cross-classification)이 있으며, 이것은 점이 직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과 직선이 상호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즉 점이 직선이라는 클래스를 포함하며,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화이트헤드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아종이 유를 포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 종, 아종으로 분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이다. 점이 안정이라면, 직선은 변화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정과 변화는 사영기하학의 점과 직선처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사유하는 근대 철학 및 사회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학적 정의이다. 이러한 역설적 조건은 상황이론을 넘어설 수 있는 수학적 기초이다(AI 232-233).

3. 과정기반이론

1) 와익의 과정이론과 역설이론

조직의 변화적 속성은 과정기반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정기반이론은 조직에서 안정적 속성 혹은 합리성을 모색하는 것은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Weick(1990)은 "조직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명사로서, 이는 또한 하나의 신화"(115)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조직에서 보는 것은 "서로 연결된 사건들"(1990: 115)과 "이렇게 연결된 사건들의 연속적인 과정과 그 경로 및 타이밍"(1990: 116)이라고 한다. Weick은 합리성이나 안정을 의미하는 명사보다는 타이밍과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의 사용이 조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 조직에 관해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명사들을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설명하려는 상황에 대해 거짓된 안정성만을 부여해줄 뿐이다. 조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사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만약 조직을

> 연구하는 학생들이 명사를 인색하게 사용하고, 동사를 풍부하게 사용하며, 동명사를 마구 사용하게 되면, 보다 많은 관심이 과정에 집중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Weick, 1990: 62).

그래서 Weick은 구조보다는 변화를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보기 위해서는 신중함(mindfulness)이 요구된다고 한다(Weick & Roberts, 1993). 이를 통해 Weick은 존재와 같은 명사, 양, 구조, 변수와 같은 언어를 박멸하고 새로운 과정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979: 44).

한편 Weick은 변화와 안정 혹은 활용과 탐험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 긴장이 발생되는 사례들을 들고 있다. 그는 소방원(1993)과 비행기 승무원(1996)의 사례를 통해 존재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소방원들에게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되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비행기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때, 승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들은 기존의 학습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원들에게 자신들의 무거운 배낭을 버리고 도망가라는 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소방원들은 팀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에 훈련받은 그대로 배낭을 짊어지고 가다가 발생한 사망사고가 있었다(Weick, 1993, 1996). 물론 훈련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학습된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활용'보다는 '탐험'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Weick의 입장이다(Baken & Hernes, 2006: 1605).

물론 Weick 역시 안정의 속성인 활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1979). Weick은 이를 라벨(label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조직화의 패턴은 직관에서 기존에 구성된 모델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새로운 사건은 일정한 행동의 루틴으로 변모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균질적으로 될 때, 주어진 사실은 어떤 라벨이 첨부되고, 구체적인 행위 과정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 즉 새로운 정보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정리되고, 범주화된다(1979: 211). 앞에서 보여준 소방원들의 경우에도, 조직화의 패턴들은 자발적인 것에서 루틴으로 변모된다. 소방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학습된 루틴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소방원들은 자발적 행동과 학습된 루틴 사이에 직면할 때, 즉 활용과 탐험 사이를 고민할 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Weick, 1979). 비상 상황에 대한 Weick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안정과 변화, 활용과 탐험의 긴장 상태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Weick에 따르면, 우리의 실재는 존재론적으로는 과정이지만,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론은 존재의 관점이기에 그 행위가 일상적 루틴으로 행동하기가 쉽다고 한다(Baken & Hernes, 2006: 1606). 따라서 우리는 급격한 사건에서 갈등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한편 Weick은 활용에 해당하는 용어를 '유적 주관성'(generic subjectivity)이라고 하며, 이것은 규칙, 습관, 루틴과 같은 구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탐험에 해당하는 용어를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e)이라고 하며, 이것은 각각의 개인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화란 상호주관성과 유적 주관성 사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직화가 생생하게 유일하게 상호 주관적인 이해와 더 이상 최초의 상호주관적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추출되고, 확대된 이해의 방식의 혼합이다(Weick 1995: 72).

Weick은 Barley(1986)의 연구를 통해 유적 주관성과 상호 주관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안정의 시기에는 유적 주관성이 활용된다. 현재 경험은 모두 동일한 루틴의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활용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배적일 때, 그들은 상호주관성에서 벗어나서 구조적 루틴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모든 해결책이 안정적인 활용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Feldman & Pentland 2005) Weick에 따르면, 방사능부서에서 스캔(CAT scanners) 기술자들은 유적 주관성을 통해 일을 해오다가, 새로운 스캔기계가 들어오면 기존의 유적 주관성에서 새로운 유적 주관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때 기존의 유적 주관성과 새로운 유적 주관성이 서로 충돌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이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상호 주관성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타난다. 상호 주관성이 기존의 낡은 유적 주관성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적 주관성과 상호 주관성 사이에는 긴장이 발생한다(Weick, 1995: 71).

이러한 긴장 관계를 통해 변화와 안정 혹은 활용과 탐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역설이론이다. Lewis(2000)에 의하면 요소들 사이에는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를 Lewis는 역설적 긴장(paradoxical tensions)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긴장이 고성과 조직의 동력이라고 그는 주장한다(Lewis, 200).

윤세준·김상표(2001/2002) 또한 역설이론이 탐험과 활용에서 비록 배타적 속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들의 적절한 균형적 상호작

용 없이는 조직의 역동적 역량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조직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분화되어야 하면서도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이홍 · 이현, 2009: 103).

예를 들어 인사관리에는 시장유형, 관료제유형, 가족유형 세 가지가 있다. 시장유형은 효율성의 방식에 따라 인적 자원을 관리하며, 관료제유형은 공식적 권위에 기초해서, 가족 유형은 가족 관계처럼 신뢰 및 인격을 틀로 한 공동체적 관계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동시에 존재해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윤세준 ·김상표, 2001).

이것들은 상호 모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호 공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으나, 상황조직처럼 활용과 탐험이 부서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 탐험을 주로 하는 연구개발부서에도 역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도입되고 있으며, 활용을 주로 하는 제조부서에도 지식 창출을 위해 시장 및 가족 유형의 인적 자원관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부서는 시장유형, 관료제유형, 가족 유형이 함께 논의되어야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부서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효율성과 혁신의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가족, 관료제 유형을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윤세준·김상표, 2001: 329). 따라서 윤세준· 김상표가 주장한 역설이론은 시장유형, 관료제유형, 가족유형의 속성이 상호 혼합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유형들이 별개라는 점은 분명하며, 그들 사이에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역설이론에도 활용과 탐험사이의 '긴장'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철학적 전제와 비판적 조망

조직 연구에서 안정보다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한 조직이론가들을 과정기반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베르그송, 제임스, 화이트헤드 등의 철학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해 왔다. Tsoukas & Chia(2002)는 제임스와 베르그송의 사상을 조직 생성이론에 적용했으며, Styhre(2004)는 지식 이론에 베르그송의 사상을 적용했다. 그리고 Carlsen(2006)은 조직의 동일성의 논의에 제임스를 적용했으며, Chia(1999)는 화이트헤드의 베르그송의 철학을 조직의 변화 이론에 적용했다.

베르그송은 지속을 보지 않고 공간화된 단순정위로 지속을 보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 "근대 과학의 기원은 운동성을 독립적인 실재로 수립한 데 있다"(Bergson, 1993: 233). 이러한 인식은 "고정된 것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아가는"(1993: 232)것이다. 하지만 지속을 볼 수 있는 직관적 인식은 "움직이는 것 안에 자리 잡고 사물의 생명 자체를 자기 것으로 하는"(1993: 232)것이라고 한다. 직관과 분석의 차이는 "분석은 움직이는 않는 것에 작용하는 반면, 직관은 운동성 안에,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인 지속 안에 위치해 있다"(1993: 217) 것이다.

이와 같이 베르그송은 과학과 형이상학의 방법을 분석적 방법과 직관적 방법으로 나누면서 양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과학은 지성을 통해 "물질의 지배자로 우리는 만드는 것"(Bergson, 1993: 43)에 골몰하고 있으며, 추상적 관념을 통한 "공간적 표상"(1993, 51)만을 갖게 할 뿐이라고 한다. 철학만이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 자기 내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은 지속하는 구체적 경험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베르그송은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고, 그 각각의 영역의 탐구는 “양적 다수성”과 “질적 다수성”(Bergson, 2011: 154-155)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학은 우리에게 ‘복지’ 혹은 ‘쾌락’을 제공해주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한다(1993: 156).

우리는 베르그송의 논의를 통해 안정을 취하는 공간화의 삶과 변화를 취하는 지속의 삶 사이에서 긴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Weick의 조직이론에서 보게 되는 긴장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의 실용성을 위해서는 지성을 통해 계산하고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의 종소리와 같은 질적 음율에 해당하는 순수 지속의 중요성은 사라진다(김형효, 1991: 104). 베르그송은 이와 같은 우리의 분절된 삶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 우리는 어떤 깊은 반성에 의해 다른 자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반성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들을 끊임없이 형성 도중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자로서, 즉 서로를 침투하고 측정에 저항하며 그 지속 속에서의 계기가 동질적 공간에서의 병치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상태로서 파악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잡는 순간은 드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때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에 대해 외적으로 살고 있으며, 우리 자아에 대해 그것의 탈색된 유령만을, 순수 지속이 동질적 공간에 투사하는 그림자만을 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시간보다는 공간 속에서 전개된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라기보다는 외부세계를 향해 산다(Bergson, 2011: 282).

한편 화이트헤드는 베르그송과는 달리 모든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는 과정 범주를 구축한다. 베르그송은 범주는 오로지 ‘정적 범주’

이며, 결코 지속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지성의 한계이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에게는 과학과 형이상학은 모두 실재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베르그송과는 달리 현대 과학과 철학을 대립적인 구도로 보지 않기에 경험의 모든 영역, 과학, 종교, 예술, 일상적 경험 등을 포괄한 과정 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지속을 체험하는 경험과 수학을 탐구하는 경험을 분리하지 않는다.

> 술 취한 경험과 맑은 정신의 경험, 잠자는 경험과 깨어나는 경험, 꾸벅꾸벅 조는 경험과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경험, 자기의식적인 경험과 자기 망각적인 경험, 지성적인 경험과 신체적인 경험, 종교적인 경험과 회의적인 경험 …이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AI 290-291).

그는 모든 이분법을 거부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화이트헤드의 철학 역시 과정패러다임에 들어가지만, 그의 철학은 베르그송보다 훨씬 광범위한 방식으로 사유한다. 그의 철학은 사건의 철학이다. 그에게는 정신도, 물질도 사건이며. 인간도 피라미드도, 지렁이도 사건이다. 그 점에서 그는 베르그송이 구분하는 과학 혹은 철학의 이분법을 거부하며, 지성의 삶과 지속의 삶의 이분화도 거부한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에는 구별에 의한 긴장이 없다. 물론 그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양자의 차이점은 화이트헤드가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의 유언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은 흐른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유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에너지의 흐름은 양자 조건'이라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의 유

언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 물리과학은 자연적 계기를 에너지의 장소로 보고 있다. 그 계기가 다른 무엇인건 간에 그것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 개체적 사실인 것이다. …물리학은 각 계기가 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방식에 관해서 계기들 간에 질적 구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흐름의 양자라는 것이다(AI 185).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에는 베르그송과는 달리 변화와 안정에 대한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한편 과정 기반이론은 '주체'와 '행위'를 상호 주관성이라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Weick과 Bergson은 모두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구체적인 자아의 행위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루만이 말하듯이, "행위가 오직 구체적인 개별인간에게만 할당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알고 보면 하나의 행위가 전적으로 개별인간의 과거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Luhmann, 2010: 1권 312). 오히려 행위 선택은 "상황"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관찰자는 사람에 대한 지식보다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그 행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상황은 "사회 체계의 자기 생산적 증식의 공동수행"(2010: 1권 312)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한다.

화이트헤드 또한 '다항 관계'를 통해 자아개념을 폐기한다. 하나의 속성은 많은 변수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지, 하나의 자아 혹은 주체에만 한정된 속성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동해의 바다는 푸르다고 진술해보자. 바다는 주어 혹은 존재이고, 푸르다는 술어 혹은 속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실체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이해하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하지

만 푸름이라는 속성은 눈에 보이는 주어의 단독 변수의 기능이 아니라 다항 변수의 기능이다. 예컨대, 해, 구름, 땅, 내가 서 있는 장소, 바람 등 다양한 변수들이 관련해서 푸름이라는 속성이 가능하다.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푸름이라는 속성을 이해하는 행위는 관찰자, 그 때의 상황 및 다른 사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지각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대상들은 모두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지각된다. 이와 같은 다항 관계를 그는 '결합체'(nexus)라고 한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주체는 대상을 통해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지, 베르그송이나 후설처럼 주체의 행위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과정기반이론은 안정과 변화 혹은 활용과 탐험에 대한 '긴장'이 있다. 여전히 이분법 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과정과 구조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재귀기반이론에서 이러한 이분법의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다.

4. 재귀기반이론

1) 양면성이론

양면성이론(ambidexterity theory)은 활용과 탐험이라는 양 속성을 긴장이나 갈등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He & Wong, 2004; Nonaka & Takeuchi, 1995). 예를 들면 양면성이란 효율성과 유연성, 정합성과 적응성, 탐색과 활용 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조직 능력을 의미한다(Adler et al., 1999; Gibson & Birkinshaw, 2004). 균형기반이론에서는 유기적 모형과 기계적 모

형이 동시에 상존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지만, 양면성 이론에서는 가능하고 긴장관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customization)이다. 이것은 대량생산과 맞춤생산을 동시에 활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Pine, 1993). 이러한 현상을 역동적 안정성이라고 한다(Victor & Boynton, 1998; 이홍· 이현, 2009).

양면성 이론은 패턴화되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루틴으로 이해된다(Winter, 2003). 탐험은 기존의 방식이나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이나 지식으로 전환하는 루틴이고 활용은 기존 방식이나 지식의 반복과 수정에 따른 루틴을 의미한다. 루틴에는 단순한 활용뿐만 아니라 조직 내 자원을 결합하는 것과 사람과 자원을 그리고 이들과 사람간의 조정을 꾀하는 복잡한 패턴이 모두 포함된다(Becker, 2004; Becker, 2005a).

특히 Feldman(2003, 2000)에 따르면, 이들 속성은 이미 루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루틴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향도 있으며, 자신을 변이시키거나 외부의 충격에 적응하려는 변화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루틴의 내부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이홍 · 이현, 2009).

보다 세부적으로는 특정한 성과산출을 위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되는 명시적 루틴(ostensive routine)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수행적 루틴(performative routine)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Feldman & Pentland, 2003). 그런데 명시적 루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행적 루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루틴은 자신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루틴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적 연쇄이고 행위자의 명

시적 루틴에 의하여 수행적 루틴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견해는 양면적 조직 설계에 있어서의 맥락적 양면성(contextual ambi- dexterity)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된다(Birkinshaw & Gibson, 2004). 이 양면성에서는 조직 내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구조적 분리 없이도 조직의 양면적 특성이 시간의 구분에 따라 활용과 탐험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조직의 역동적 역량은 합리성과 적응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보다는 구성원의 활동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를 위한 조직적 맥락의 구축이 맥락적 양면성의 핵심이 된다. 이에 맥락적 양면성의 성공 요인은 개별 종업원들이 개인별로 시간을 구분하여 정합성과 적응성에 초점을 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이홍· 이현, 2009).

지금까지 살펴본 조직이론의 전개흐름을 정리해보자면, 상황이론에서 두 속성의 배타성은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설계방식을 달리 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역설이론에서는 두 속성의 상호 관계를 주장한다. 비록 두 속성이 배타적이지만 이 두 속성이 조직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작용할 때 고성과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활용과 탐색은 속성의 존재 방식에서는 상호작용하지만, 양립성에 있어서는 배타적이라는 것이 역설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과정기반이론의 핵심적 조직이론에 속하는 Weick의 이론과 역설이론은 모두 활용과 탐험이라는 속성들을 긴장 관계 속에서 본다(이홍· 이현, 2009: 101). 이와는 달리 속성의 존재 방식도 상호 작용하며, 활용과 탐험이 상호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양면성 조직이론이다. 즉, 이것은 안정적 속성인 활용과 변화적 속성인 탐험이 상호 간에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양립가능하다는 이론이다(이홍· 이현, 2009: 101).

물론 양면성이론의 연구자 중에서는 활용과 탐험이 여전이 긴장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Andriopoulos와 Lewis (2009)에 따르면 양면성을 실현하는 5개 회사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역설적 구도는 여전히 긴장(tension) 속에서 통합과 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양면성 이론의 연구자들이 두 속성은 긴장 관계에 있지 않고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득은 외형적인 실증 사례를 통해 논의되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오히려 추상성이 높은 철학적 전제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양면성이론이 가져야 할 철학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재귀기반이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철학적 전제와 역설

균형기반이론과 과정기반이론은 각각 안정과 변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서로 긴장 상태에 있다. 즉 안정과 변화가 서로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조직이론이 기반으로 하는 철학이론에서는 이 양자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존재철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균형기반이론과 과정철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정기반이론은 서양 사유의 주된 두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 다윈으로 연결된 사유의 길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헤라클레이토스, 후설, 베르그송으로 이어진 사유의 도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유의 계보는 조직이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성과가 활용과 탐험이라는 두 속성을 함께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틀은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Clegg(1994)에 따르면 균형기반이론은 너무 결정론적이며, 과정기반이론은 너무 비결정적이라고 한다. Reed(1996) 역시 이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활용과 탐색을 이분법(dualism)으로 보지 않고 이원성(duality)으로 보는 것이다. 이원성이란 존재를 과정과 구조를 함께 가진 양극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재귀기반이론에서 철학적 전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Giddens(1984)와 Luhmann(1995)은 변화와 안정 사이의 관계를 재귀적 관계로 사회를 본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특히 재귀준거 개념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정교하게 집대성한 인물이 Luhmann이다. 그는 사회가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한다. 루만의 사회학 이론은 자기 자신을 사회 속에 포함시킨다. “관찰자는 관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체/객체 도식은 기능하지 않는다. 관찰자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이다”(Berghaus, 2012: 49).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루만 자신이 세계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세계의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Luhmann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재귀적 과정으로 본다. 그는 의사소통을 일종의 흐름의 과정으로 보고, 그 특수한 조직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코드를 구조로 간주했다. 이 과정과 구조가 없다면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구조와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넘어가고,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때의 안정은 균형기반에서 의미하는 안정은 결코 아니다. 이를 통해 Luhmann은 과정과 구조를 배제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로 이해한다(Bakken & Hernes, 2006: 1612).

안정과 변화 혹은 구조와 사건을 함께 논의하는 재귀이론은 보통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혹은 자기 생산(autopoiesis)이론이라고 한다. 재귀이론에서 체계는 자기 생산적이며, 재귀 준거 혹은 자기 준거이다. 재귀이론은 체계를 스스로 만들고 자신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가진다. 모든 생명은 자기 생산적이다. 식물, 동물, 인간은 자신들을 재생산하며, 스스로 작동하며 산다는 점에서 자기 생산 체계이다. 여기에서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계의 재생산에는 기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체계가 생존하기 위해 물과 산소, 영양분이라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점에서 환경은 체계에 개입하지만, 체계 자체의 작동에는 결코 관여할 수 없다. 체계 작동은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체계는 그 차이를 자신에게 재복제하면서 자신과 환경 사이에 내부 경계선과 외부 경계선을 확정한다. 이때 체계와 환경을 가르는 차이가 그 체계 자체에 의해 구획된 경우에는 재귀준거라고 하며, 환경에 의해 강요될 경우에는 외율준거라고 한다”(Becker, 2010: 21). 따라서 자기 생산체계는 자기 준거 체계이다(Berghaus, 2012: 68-72).

이런 점에서 재귀이론은 역설(paradox)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세기 초에 ‘자기 재귀’ 혹은 ‘자기 언급’(self-reference)이라는 역설 문제가 발생한다. 러셀은 집합이 자기 자신을 요소로 포함할 경우에 역설이 생긴다고 한다. 이는 어떤 이발사가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이발사 자신이 머리를 깎아주는 집합에 두고 머리를 깎이는 사람들을 그 집합의 요소로 삼을 때, 이발사 자신이 그 요소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역설이 발생한다. 이발사는 자신의 머리를 직접 깎기에 ’자기 언급‘이라고 한다. 또한 집합이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자기부정‘(self-annihilation)이라고도 한다(김상

일, 2005: 163).

화이트헤드는 러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Principia mathmatica)를 함께 적는다. 화이트헤드는 이 책의 서문에서, "최근 들어 하나의 역설을 풀기 위해 기호 논리학과 집합론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1910)고 하며, 그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유형 이론'(type theory)을 제시한다. 이것은 집합과 요소를 위계적으로 나누어서 역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유형 이론은 한 마디로 집합, 집합의 집합, 집합의 집합의 집합 등으로 유형을 계층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에서 만든 형식문들은 서로 상대방에 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관해서도 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괴델의 그 유명한 증명을 통해 밝혀진다.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유형이론을 통해 자기 언급의 악순환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지만, 그 악순환이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이 괴델의 논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Nagel & Newman, 2010: 14-15).

그렇다면 우리가 화이트헤드의 사변철학 및 범주들이 그 역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재귀이론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할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루만(Luhmann)과 베커(becker)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루만에 따르면 '사건과 구조'는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의 특징이라고 한다(2011: 2권 70). 또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편집자인 Becker(2010)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루만보다 일찍이 재귀 이론의 관점에서 세계를 설명한 유일한 우주론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라고 한다(2010: 43). 그의 철학은 실재는 사건이며, 이 사건은 체계와 환경과의 경계를 통해 구

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화이트헤드가 한 번도 괴델을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 역시 괴델의 논증을 숙고한 후에 사변철학에서는 자기 언급의 역설을 수용한 철학을 제시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재귀이론이라는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5. 유기체 철학의 범주와 재귀이론

1) 현실적 존재와 자기 준거

루만은 화이트헤드의 범주체계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 재귀이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범주체계의 어떤 점이 재귀이론과 연관이 있는지를 루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루만의 자기 생산 체계이론은 변화와 안정을 함께 논의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재생산적 재귀 기술의 전통적 개념은 '구조'와 '과정'으로 불리는 두 가지 상이한 요소를 결합시킨다"(Luhmann, 2010: 62). 따라서 그는 구조와 과정은 체계 내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한다.

> 구조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여타 가능성들을 배제해야만 바로 다음에 후속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과정의 시각에서 보면, 이전/이후 사이의 차이가 결정적이다. 과정은 잠정적 활성상태로부터 전이과정을 거쳐 그에 적절한 상이한 요소들로 이동하면서 스스로를 규정한다(2006: 62-63).

루만은 구조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과정은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루만이 사건과 구조라는 상보 개념, 즉 변화와 안정을 재귀 준거개념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고 할 때, 그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현실적 계기"라는 개념이 기저재귀준거 위치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2011: 2권 68).

현실적 계기 혹은 현실적 존재는 생성 즉시 소멸하는 원자적 계기로 그것은 단지 원자적 차이를 만들어 내며, 자기 창조적이며, 자기 원인이다. 그것은 외부에 자신의 원인을 두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원인이자 결과이다. 따라서 Luhmann에게 과정은 현실적 계기의 차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가장 미시적 존재로 보는 분자나 원자는 현실적 계기가 아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분자는 현실적 계기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현실적 계기의 어떤 결합체"(PR 73)이며, 변화는 결정된 어떤 사건[결합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적 계기들 사이의 차이이다(PR 73). 거시적 존재들로 경험하는 책상, 바다, 인간, 기업은 모두 현실적 계기들이 상호 내재되어 있는 결합체이다(AI 316). 이때 결합체가 한정된 특성을 향유하는 경우를 사회라고 한다(AI 320). 이와 같이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이다. 따라서 Luhmann이 말하는 구조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여타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후속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결합체 혹은 사회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합체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 속성을 부여받는 것이지 결코 영속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균형기반

이론에 토대를 둔 철학적 전제로써 “고대 희랍인들의 시대로부터 서구의 형이상학을 좌절시켜온 중대한 오류인 것이다”(AI 321).

그렇다면 현실적 존재가 상호 내재하는 결합체 속에서 안정과 변화라는 재귀적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결합체는 “상호간의 파악들-동일한 사물에 대한 반대의 표현으로-상호간의 객체화에 의해 구성된 관계성의 통일 속에 있는 현실적 존재들의 집합”(PR 24)이다. Luhmann에 따르면, “재귀준거란 복합적 개념으로서, ‘자기 동일성’과 ‘자기 다양성’을 조합하여 스스로를 내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동시에 외적 공동 규정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Luhmann, 2006: 2권 69). 그것은 현실적 존재만큼 구체적인 결합체 내에서 현실적 존재들 사이에서 자기 동일성과 자기 다양성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만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설명범주는 (xxi)과 (xxii)라고 한다.

> xxi) 존재는 스스로 의미관계(significance)를 가지게 될 때 현실적(actual)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가 그 자신이 결정되어 과정에 참여하여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 존재는 자기 동일성과 자기 다양성을 결부시고 있다(PR 25).

> xxii)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에 대하여 기능함으로써 그 자기 동일성을 잃지 않고도 자기 형성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창조적이다. 그리고 그 창조 과정에서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나의 정합적인 역할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생성은 부정합(incoherence)으로부터 정합(coherence)으로의 전환이며, 각각의 특정한 사례에서 그러한 전환이 달성될 때 종결된다(PR 25).

이 설명의 범주에서 ‘스스로 의미관계를 가지게 될 때 현실적’

이라는 것은 자기 생산적인 체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 존재는 재귀적으로 외부의 준거가 아니라 자기 준거를 통해 의미관계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관계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자기 동일성과 자기 다양성을 결부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수학적 구조와 자연의 구조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처럼 원자나 분자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수학적 형태, 기하학적 구조, 질적인 대비와 같은 메타적 구조를 통해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김영진, 1996). 분자들 사이의 변화는 결국 질적인 대비를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에 있다. 그는 "물질세계의 수학적 개념들"(MC)에서 선형적 실재 개념을 도출하며, 이 개념에서 방향성, 사이성,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이끌어낸다. 이 논문에서, 특히 사이성과 순서를 설명하는 공리에서 R:(abcdt)은 R:(adcbt)을 함축하는 진술이라고 한다. 즉 d와 b사이에 c가 있다는 사실에서 이 공리는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R:(abcdt)은 R:(acdbt)는 일관적이지 않다고 진술한다. 여기에서는 그 순서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c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한다(김영진, 2006: 117).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의미하는 질적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시미즈 히로시는 생명의 자기 언급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소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다만 관계에 의해 그 성질을 자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는 마치 바둑알이 바둑판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요소적 성격을 자유자재로 바꾸어야 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자기 언급 생명 시스템에서는 한 개의 세포가 신체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 사이

의 관계성이 바뀌고 그 세포의 성질이 바뀐다. 바둑판에 따라 바둑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과 같다(시미즈 히로시, 1994: 25-27). 이것이 자기 생산체계를 갖춘 생물들이 자기 동일성 속에서 자기 다양성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화이트헤드는 방향성, 사이성, 분리성이라는 수학적 개념들을 통해 생명체 속의 자기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존재가 스스로 '의미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자연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이해로부터 추적해보자. 의미관계는 말 그대로 사물들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강아지라고 "인식하는 것은 단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관계성"(CN 13)이다.

예를 들어, 구름에 심홍색이라는 속성이 진입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의미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드는 우주와의 보다 넓은 체계적 관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심홍색 구름은 스스로 의미관계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진다.

> 여러분은 체계로서 자연을 볼 때, 구름이 심홍색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는 체계의 항목들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 체계적 관계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자연이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없다. …나는 체계적인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 원리를 사건들의 일정한 의미관계라고 부른다. 이 일정한 의미관계는 경험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자연의 인내를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구름의 심홍색이다(IS 140).

구름은 다항 관계로 구성된 결합체이며, 심홍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화이트헤드가 의미하는 '변환의 범주'를 구성한 것이다. 결합

체로써 구름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다양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심홍색 구름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흰 색 구름도 가능하며, 회색 구름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의 주기를 통해 존속하는 구름에게 다양한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심홍색이라는 안정된 속성을 유지하다가, 빛이나 태풍에 의해 다른 색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은 설명범주 xxii)에서 자기 동일성을 잃지 않고도 자기 형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 존재들이 구름이라는 결합체 내에서 상호 파악하고 상호 객체화되기 때문이다(PR 24). 그것들은 결합체라는 존속하는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발장이라는 한 개인이 맥락에 따라 범죄자와 성인의 속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개과천선이라는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 존재의 자기동일성과 자기다양성의 의미관계 활동은 결합체라는 체계 혹은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결합체 내부의 “모든 존재들의 다양한 기능들의 공동체”(PR 25)에서 분리할 수 없는 활동이다. 즉 결합체(사건) 혹은 사회라는 체계 내에서 현실적 존재는 주체와 자기초월체라는 이원성(duality)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직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활용과 탐색은 별개의 속성이 아니라 현실적 존재 내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안정과 변화의 활동은 한 개인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 존재는 외부의 준거나 원인이 아니라 자기준거를 통해 주체적 조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외부준거인 신에 의한 예정조화를 이야기 했다면, 화이트헤드는 자기

준거를 통한 주체적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부정합성에서 새로운 정합성으로 전개하는 '카오스모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진, 2011).

이것은 러셀-타르스키-크립키로 이어지는 대상과 메타 사이에서 일관성을 찾는 방식이 아니다. 이들은 계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일관성을 추구하는 코스모스의 방식에서 역설의 해법을 찾는다. 이에 반해 키하라-헤르즈버그-굽타의 해법은 비일관성의 방식에서 해법을 찾는다(김상일, 1997: 73). 이것은 위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 방식에서 방법을 찾는다. 즉 순환적이고 비일관적인 방식에서 그 방법을 모색한다. 이 발견은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질서-무질서라는 반대 일치 현상을 예견하게 한다. 이를 카오스모스라고 한다"(김상일, 2005: 205).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수학적 시기에서는 러셀과 같은 계층적 방식을 통해 역설 모순을 해소하였지만, 괴델 이후에는 비일관성의 방식에서 그 역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코스모스의 철학이 아니라 카오스모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가 '스스로 의미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마치 이발사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귀' 혹은 '자기 언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존재가 주체와 자기 초월체, 이행과 합생과정이라는 화이트헤드의 언급은 바로 재귀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존재는 '카오스모스'의 활동을 통해 구성하고 구성되는 재귀적 과정이다.

2) 대비와 잉여성

> 민족은 줄곧 있었던 것과 이제부터 있게 되는 것과의 진정한 대비(contrast)를 간직하고 있는 한, 그리고 안일한 과거를 뛰어넘어 모험하는 혈기를 지니는 한, 그 활력은 유지된다. 모험이 없으면 문명은 완전히 쇠퇴한다(AI 244-425).

최근에는 근대 과학과 철학의 핵심적인 전제인 선형적 인과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이론은 어떤 현상을 몇 개의 요소들로 환원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귀준거는 복잡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즉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들의 요소들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귀 준거 개념은 "결정체 같은 완전 결속보다는 기체 같은 느슨한 선택 결속만이 가능한 다수의 이질적 성분들로 구성"(Becker, 2010: 42)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가 외부에 준거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하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느슨한 선택 결속'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루만에 따르면, 화이트헤드의 '범주적 제약'(categoreal obligation)은 재귀 준거와 잉여성을 설명하는 범주 체계라고 한다. 그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주체적 통일성의 범주', '대상적 동일성의 범주', '대상적 다양성의 범주'라는 세 가지 범주를 통해 '재귀준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2011: 2권 68)이라고 한다. 그는 이를 "서로 모순을 이루는 수많은 변수들 사이의 결합체를 하나의 통일체"(2011: 2권 69)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안정과 변화라는 역설이 범주적 제약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정과 실재』의 범주적 제약이 재귀적 특성이 있음을 자신의 방식대로의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재귀준거란 복합적 개념으로서, '자기 동일성'과 '자기 다양성'을

조합하여 스스로를 내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동시에 외적 공동 규정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런 방식으로 달성된 것은 피상적으로 서로 모순을 이루는 수많은 변수들 사이의 결합체, 이를테면 (1) 요소들 사이의 선별적 연결 (2) 상호침투를 통해 다른 현실층위들에서 유래하는 자유에너지들의 결속 (3) 연결과 결속 사이의 부단하고 즉각적인 재해체 (4) 연결과 결속이라는 모든 관계들의 선별성에 기초한 요소들의 재생산 (5)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개시하는 일탈적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의 진화 능력 사이의 통일체로 기술할 수 있다(Luhmann, 2011: 2권 69).

Luhmann은 화이트헤드의 범주적 제약범주들이 모두 재귀적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 안에서 안정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안정은 '개념적 가치평가의 범주'와 '변환의 범주'를 통해 가능하다. 개념적 가치평가의 범주는 물리적 느낌을 개념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환의 범주는 결합체를 하나의 개념적 느낌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변환된 느낌의 여건들을 하나의 영원한 대상으로 결합하는 '대비'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바다를 푸름이라는 속성을 관련짓는 것과 같다.

개념적 역전의 범주는 주어진 속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른 바다라는 속성에서 푸름을 평화와 연결해서 푸른 바다를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다를 평화와 연결시키는 대비를 가져올 수 있다.

지면상 이 논의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까닭에, 여기서는 대상적 다양성의 범주에만 한정해서 재귀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잉여성'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 대상적 다양성의 범주는 '연결과 결속의 재해체'라고 한다. 이것은 요소들에 잉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소들의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 결속이 없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절대적 동일성'(absolute identity)이 없다는 의미로 표현한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위해 '대비'(contrast)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다수의 요소들이 하나의 여건으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존재들의 대비"(contrast of entities)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대비로 연결되고 결속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한다(PR 205).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대비가 발생할 수 있는가?

화이트헤드는 생명은 "공허한 공간(empty space)의 특성(PR 105/218)이 있으며, 그것은 "입자적 사회에 의해 점유되지 않는 공간"(PR 105)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계기들의 결합체 속에는 어떤 "사회적 결여"(social deficiency)(PR 105)가 있어야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이를 "틈새"(interstices)(PR 106)라고 한다. 이 틈새로 인해 "물리적 경험의 다양한 여건이 복합적"(PR 106)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대비가 경험에 도입될 수 있으며"(PR 106), 이런 이유로 "자연의 복합성은 고갈될 수 없다는"(PR 106)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복잡성 이론 및 재귀 이론의 잉여성에 대한 논의가 화이트헤드의 자연에 대한 이해에도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안정과 변화를 고려하는 대상은 거의 언제나 "사회이거나 현실적 존재들의 보다 느슨한 그룹(looser groups)"(PR 198/367)이다. 화이트헤드는 러셀과 작업한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에서 다룬 수학적 명제 1+1=2라는 명제가 사변철학의 시기에 와서는 그것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PR 198). 왜냐하면 여기서 1은 사회이거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적 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잉여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컵의 한정 특성과 컵의 받침 접시의 한정 특성은 다르다. 즉 그 속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칸트가 말한 것처럼 두 대상의 한정특성은 매우 이질적인 것이므로 결코 하나로 결합할 수 없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양자의 한정 특성을 양립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그는 하나의 현실적 계기 안에서 두 한정 특성이 모순되지 않고 교차하는(intersecting)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PR 199/368). 물론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모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허한 공간의 황야에 위치하고 있는…그런 현실적 존재들의 한복판에서는"(PR 199)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차는 역사적 경로를 통해 빈번하게 출현할 수 있다(PR 199). 따라서 결합체 내의 현실적 계기들 사이에는 새로운 대비를 출현시킬 잉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베이트슨은 게의 좌우의 다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게의 두 다리의 모양은 설령 다르더라도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를 서로 잇는 패턴이라고 한다. 베이트슨은 서로 잇는 패턴을 '연결시키는 패턴' 혹은 "메타 패턴"(metapattern)이라고 한다(Bateson, 1990: 22). 그 다음으로 이런 것이 내 자신과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패턴을 한번 부수어 보면 새로운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는 게와 새우의 결합을 통해 2차 패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게와 새우의 결합을 말과 인간의 결합을 고려한 3차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종과 종 사이를 동일하게 교차"(1990: 21)하는 것이다(Bateson, 1990: 18-23). 이것은 화이트헤드의 개념적 역전의 범주를 통해 '대비의 대비' 혹은 '교차'를 통해 새로운 양립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새로운 탐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비의 대비는 최소한의 대비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비의 대비는 바로 유일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대비의 대비를 최소한의 대비로 환원하게 되면 레비 스트로스의 작업처럼 정태적인 구조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대비는 역동적 구조이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구조가 대비인 것이지, 과정을 배제한 정태적 구조가 대비인 것은 아니다.

> 관계는 대비의 추상물이다. 관계는 많은 대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발견될 때, 그것은 대비된 사물들을 관계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다원적 대비라는 용어는 함께 대비된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있든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목해둘 가치가 있다. 다원적 대비는 그것을 구성하는 이원적 대비들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원적 대비는 이원적 대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대비들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대비이다. 다원적 대비가 이원적 대비들의 단순한 이접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학설은 창발적 진화(emergent evolution)의 토대가 된다. 이는 실재적인 통일성이란 그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이접 이상의 것이라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저 개별적인 실체들의 클래스 이론에 대한 반론과 동일한 근거를 갖는다. 이 학설은 예술에서 보면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PR 417).

우리는 하위의 대비를 통해 상위의 대비를 환원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재 통일을 구축하는 다원적 대비는 기존의 어떤 대비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결합체 속에서 주체와 자기초월체라는 재귀적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강도의 상승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개념적 역전의 범주를 통해 양립불가능한 요인들을 대비를 통해 양립가능한 요인들

로 결합해야 한다.

> 이러한 강도는 그 사회가 그 구성 요소들을 위해 연출하는 대비의 질서화된 복합성 때문에 생겨난다. 구조적인 관계는 개체적인 경험에 있어서의 이러한 강도로부터 강도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구조를 갖는 복합적인 사회의 성장은 자연에 침투해 있는 일반적인 목적을 예증하고 있다. 양립 불가능성을 초래하는 소여성의 단순한 복합성은, 대비를 산출하는 질서의 복합성으로 대치되어 왔던 것이다(PR 209).

화이트헤드에게 대비는 대립을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그는 한 존재를 하나의 속성으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그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신은 영속하고, 세계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는 영속하고 신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대립을 '대비'로 전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신과 세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신이 유동적인 경우에 세계는 영속적이 되며, 세계가 유동적인 경우에 신이 영속적이 된다. 달리 말해서 신은 영속과 유동이라는 속성을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시점이나 맥락에 따라 두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화이트헤드는 "각 대구에는 대립을 대비로 전환시키는 의미의 전환"(PR 598)이 있다는 사실을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들고 있다.

> 일련의 대립-그 외견상의 모순은 현존의 여러 다양한 범주를 무시하는 데 있다-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각 대구에는 대립을 대비로 전환시키는 의미의 전환이 있다. 신은 항구적이고 세계

> 는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는 항구적이고 신은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신과 세계는 대비된 대립자이며, 이 대립자에 의해서 창조성은 대립 속에 다양성을 갖는 이접적 다수성을, 대비 속에 다양성을 갖는 합생적 통일로 변형시키는 그 최상의 임무를 수행한다(PR 598).

베이트슨에 따르면, "맥락이란 개념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패턴이라는 개념"(Bateson, 1990: 26)이다. 그에 따르면, 그 한정 특성이 전혀 다른 아주 대조적인 포유동물들이 맥락에 따라 함께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트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네덜란드 산 삽살개와 긴팔 원숭이 사이에서 일어난 이 놀이의 과정을 찬찬히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원숭이에게 느닷없이 털을 뜯긴 개는 원숭이를 쫓아갔다. 그의 반응은 분명히 정상적이었다. 그러자 개가 원숭이를 쫓고 원숭이가 달아나게 되어 시스템 전체가 현관에서 침실로 이동한다. 잠시 있다가 원숭이가 이번에는 공격으로 전환하자 개는 현관으로 뒷걸음친다. 개와 원숭이는 상호 간에 쫓고 쫓기는 놀이를 즐긴다(Bateson, 1990: 167). 이러한 예는 전혀 그 속성을 달리하는 동물들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가면서 놀이를 통해 대비의 실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 시점에 따라서 다른 대상과의 대구를 통해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 결합체에 내재해 있는 속성들은 시의 적절한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원숭이와 개는 명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놀이로 연결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놀이라는 변환의 범주 속에 양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와 원숭이이라는

각각의 한정 특성을 갖는 사회는 교차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대비의 대비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조직이론을 균형기반이론, 과정기반이론, 재귀기반이론으로 나누어서 각 이론의 철학적 전제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고찰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재귀이론의 연구가인 루만의 관점을 통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재귀기반이론에 있음을 알아보았다. 재귀기반이론은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속성이 양립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재귀기반이론이라는 주장을 통해 안정과 변화에 대한 철학적 전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루만이 세계를 관찰하는 관찰자는 여전히 세계 내에 있다는 역설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계기는 주체적 활동과 대상적 활동(자기 초월체 활동)을 자기 준거(자기 원인)을 통해 조화롭게 실천해 가는 역설적 존재이다. 이것은 루만이 언급한 것처럼 재귀기반이론에 대한 선구적인 통찰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안정'과 '변화'라는 속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거나 긴장 속에 두지 않고 결합체 속에서 '대비'를 통해 끊임없이 조화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조직이론에서 양면성 이론의 철학적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쪽에 있는 관계항으로서의 경험의 계기와 다른 한쪽에 있는

관계항으로서의 경험된 세계 사이의 관계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그 계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계기가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나는 방 안에 있으며, 방은 현재의 내 경험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항목이다(MT 163).

한편 화이트헤드는 균형기반에서 주장하는 안정을 그 어떤 사회학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과정기반이론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관례적 방식이 완전할 경우, 광산 갱도의 붕괴나 가뭄의 장기화 또는 독감의 유행과 같은 익숙한 사고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성의 사소한 번득임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이해라는 것은 도외시될 수 있다. 조직은 지성의 소산이다. 그러나 충분한 관례가 확립되면, 지성은 소멸되고, 조직은 모든 조건반사를 조정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수훈련을 받아들이는 일이다.....이해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성의 작은 섬광에 의해 수정된 관례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의 중요한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대는 한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고정된 조건에 자신을 적응하도록 훈련되어 왔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시간대가 인간의 수명보다 더 짧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새로운 조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AI 163-166).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각 개인과 조직이 안정과 변화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거나 긴장의 관계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이를 '모험'이라는 관념을 통해 안정과 변화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관례를 중시하면서 상상력을 통해 새로

운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 붕괴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어떤 조직도 안정과 변화, 활용과 탐험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실현하지 않고는 그 활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모험은 한계 내에서 작용한다. 그때 모험은 그 목표를 계산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모험은 한 유형의 문명 내부에서 변화의 잔물결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유형의 시대는 그 신선함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단 모험의 활력이 주어지는 날에는 조만간 상상력이 그 시대의 안전한 한계의 저편으로, 학습된 취미의 규칙의 안전한 한계 저편으로 비상한다. 그때 그것은 문명화된 노력을 위한 새로운 이상의 도래를 반영하는 이탈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AI 424).

변화의 잔물결에 해당하는 모험은 활용의 모험이며, 안전한 한계 저편으로 비상하는 모험은 탐험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결합체 속에서 활용과 탐험의 모험은 결국 “시의를 얻어”(AI 424) 진정한 대비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화이트헤드는 완전한 조화는 있을 수 없으며, 그 양립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실현가능한 대비만을 파악해 가는 것이 모험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김상표·김영진(2010), 「화이트헤드철학과 조직이론의 만남-실체철학을 넘어서-」, 『화이트헤드 연구』 20권, 145-188.

김상표·김영진(2011), 「과정철학과 조직이론: 창조성과 예견을 중심으로」, 『화이트헤드 연구』 제 22집, 41-80.

김상표(2002), 「역설의 경영: 조직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4권, 151-178.

김상표(2001), 「시장, 관료제, 그리고 가족: 인적자원의 역설경영의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 『인사·조직연구』 제 9권 2호, 313-365.

김영진(2005), 「화이트헤드의 가능태와 현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진(2006), 「칸트와 화이트헤드의 시간론」, 『화이트헤드연구』 제 13집, 93-133.

김영진(2011), 「21세기 조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이트헤드와 들뢰즈의 과정철학과 카오스모스」, 『새한철학회 논문집』 제 65집 3권.

김상표·김영진(2011), 「화이트헤드와 들뢰즈의 과정철학: 조직의 창조성과 실천적 프로네시스를 위한 새로운 문제 설정」, 『동서철학연구』 제 61호.

이홍 ·이현(2009), 「양면성을 통한 역동적 역량의 구현: 역사적 조망과 이의 효과적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인사·조직연구』 제 17권 2호, 95-124.

윤세준·김상표(2000),「역설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탐색: 전략, 리더십, 부서간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제 24권 1호, 129-163.

윤세준·김상표(2001),「시장, 관료제, 그리고 가족: 인적 자원의 역설경영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 『인사· 조직연구』 제 9권 2호, 313-356.

윤세준·김상표(1997), 「역설의 경영과 조직구조」,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논문집』, 435-461.

윤세준·김상표(1998), 「시장, 관료제, 그리고 가족: 인적자원관리의 세 가지 패러다임과 기업성과」, 『한국인사조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37-63.

김상일(1997), 『러셀 역설과 과학 혁명 구조』, 서울: 솔.

김상일(2005), 『한의학과 러셀 역설 해의: 음양오행론으로 현대 논리학의 난

제 풀어보기』, 서울: 지식산업사.
김형효(1991), 『베르그송의 철학』, 서울: 민음사.
시미즈 히로시(1994), 『생명과 장소』, 서울: 전파과학사.
Bateson, G.(1990), 『정신과 자연』, 박지동 옮김, 서울: 까치.
Bateson, G.(2006), 『마음의 생태학』, 박대식 옮김, 서울: 책세상.
Bergson, H.(1993), 『사유와 운동』, 이광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Bergson, H.(2011),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최화 옮김, 서울: 아카넷.
Burrell, G. & Morgan, G(1990), 『사회과학과 조직이론』, 윤재풍 옮김, 서울: 박영사.
Luhmann, N.(2010), 『사회체계이론』 1권/2권, 박여성 옮김, 경기도: 한길사.
Kant, I.(2006), 『순수이성비판』 1권/2권,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Morgan, G.(2004), 『조직의 8가지 이미지』, 박상언·김주엽 옮김, 서울: 지샘.
Nagel, E., Newman, J. R.(2010), 『괴델의 증명』, 곽강제· 고중숙, 서울: 승산.
Nonaka, Ryoko, Toyama(2009), Managing Flow, 김무겸(2010) 역, 「창조적 루틴」, 북스넛.
Adler, P. S.(1999), Building Better Bureaucracie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3: 36-49.
Andriopoulos, C., & Lewis, M. W.(2009), Exploitation-exploration tensions and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Managing paradoxes of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20(4): 696-717.
Banner, M. J., & Tushman, M. L.(2003), Exploitation, exploration, and process management: The productivity dilemma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238-256.
Bakken, T., & Hernes, T.(2003), Autopoietic organization theory: Drawing on Niklas Luhmann's social systems perspective, Oslo: Abstrakt, Liber, Copenhagen Business School Press.
Barley, S. R.(1986), Technology as an occasion for structuring: Evidence from observations of CAT scanners and the social order of radiology depart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 78-108.
Becker, M. C.(2004), Organizational routin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3(4): 643-677.
Becker, M. C.(2005a), The concept of routines: Some clarifica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9(2): 249-262.

Becker, M. C.(2005b), A Framework for applying Organizational routine in empirical research: linking antecedent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utcomes of recurrent interaction pattern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4(5): 817-846.

Birkinshaw, J., & Gibson, C.(2004), Building ambidexterity into an organization, Sloan Management Review, 45, 4, 46-55.

Bateson, Gregory(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orthwhale, NJ: Jason Aronson.

Bergson, H.(1988), Matter and memory, New York: Zone Books.

Carlson, A.(2006), Organizational becoming as dialogic imagination of practice: The case of the indomitable Gauls, Organization Science 17/1:132-149.

Chia, R.(1999), A Rhizomic model of organizational change and transformation: Perspective from a metaphysics of chang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0: 209-227.

Chia, R.(2000), Time, duration and simultaneity: Rethinking process and change in organizatio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Toronto, August 2000.

Gibson, C. B., & Birkinshaw, J.(2004), The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7: 209-226.

Clegg, S.(1994), Weber and Foucault: Social theory for the study of organization, Organization, 1/1: 149-178.

Collins, J. C., & Porras, J. I.(1994), Built To Last: Successful Habits of Visionary Companie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Cobb, J. B.(2007), Person-in-Community: Whiteheadian Insights into Community and Institution, Organizational Studies, 28/4:567-588.

Cooper, R.(2005), Relationality, Organization Studies, 26/11: 1689-1710.

Duncan, R. B.(1976), The ambidextrous organization: Designing dual structures for innovation, In Kilman, R. H., Pondy. L. R., & Slevin, D. P. (Eds.),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Design, 1: 167-168, New York: North-Holland.

Evans, P. A. & Doz, Y.(1992), Dualities: A paradigm for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 Complex Multinationals. In V. pucik, N. M. Tichy and C. K. Barnett (Eds.), Globalizing Management: Creating and

Leading the Competitive Organization: 85-106.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Feldman, S. P.(1989), The Broken Wheel: The Inseparability of Autonomy and Control in Innovation with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6: 82-102.

Feldman, M.(2000), Organizational routines as a source of continuous change, Organization Science, 11/6: 611-629.

Feldman, M. S.(2000), Organizational routines as a source of continuous change, Organization Science, 11(6): 611-629.

Feldman, M. S.(2003), A performative perspective on stability and change in organizational routin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2(4): 727-752.

Feldman, M., & Pentland, B. T.(2003), Reconcepttualizing organizational routines as a source of flexibility and chan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82: 94-118.

Feldman, M., & Pentland, B. T.(2005), Organizational routines and the macro-actor, Actor-network theory and organizing, B. Czariawska and T. Hernes (eds), 91-111. Stockholm: Liber and CBS Press.

Ford, J. D. & Backoff, R. H.(1988), Organizational Change in and out of Dualities and Paradox. In R. E. Quinn and K. S. Camero (Eds.), Paradox and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81-122.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Giddens, A.(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Jones, C. & Munro, R.(2005), Organization Theory, 1985-2005,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Hartshorne, C.(2003), A new world view, Herbert F. Vetter(ed.) Cambridge, MA: Harvard Square Library.

He, Z. & Wong, P.(2004), Exploration vs. exploitation: An empirical test of the ambidexterity hypothesis. Organization Science, 15: 481-494.

Langley, A.(1999), Strategies for theorizing from process data,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691-710

Lawrence, P. R. & Lorsch, J. W.(1967),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ewis, M. W.(2000), Exploring paradox: Toward a more comprehensive guid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760-776.

Luhmann, N.(1995), Social syste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arch, J. G.(1981), Footnotes to organizational chan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6: 563-577.

Nonaka, I., & Takeuchi, H.(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ttigrew, A. M.(1987), The management of strategic change, Oxford: Blackwell.

Perrow, C.(1979), Complex Organization: A Critical Essay, Glenview, IL: Scott, Foresman.

Pine, B.(1993), Mass customization,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eed, M.(1996), Organizational theorizing: A historically contested terrain in Handbook of Organization studies. S. R. Clegg, C. Hardy and W. R. Nord(Eds.), 31-56, London: Sage.

Reed, M.(1997), In Praise of duality and dualism: Rethinking agency and structure in organizational analysis, Organization Studies, 18/1: 21-41.

Rescher, N.(1996), Process metaphysics: An introduction to process philosoph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Tsoukas, H., & Chia, R.(2002), On organizational becoming: Rethinking organizational change, Organization Science, 13/5: 567-582.

Van de Ven, A. H., & Drazin, R.(1985), The concept of fit in contingency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 333-365.

Victor, B., & Boynton, A. C.(1998), Invented here, maximizing your organization's internal growth and profitability: A practical guide to transforming work,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Von Glinow, M. A.(1988). The New Professionals: Managing Today's High-Tech Employee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Weick, Karl E.(1979),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ing, 2nd edn, New York: Random House.

Weick, Karl E.(1990), The vulnerable system: Analysis of the Tenerife air disaster, Journal of Management, 16: 571-593.

Weick, Karl E.(1993), The collapse of sensemaking in organization: The Mann Gulch disast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628-652.

Weick, Karl E.(1995), Sensemaking in organizations, Thousand Oaks, A:Sage.

Weick, Karl(1996), Drop your tools: An allegory for organizational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2: 301-312.
Weick, Karl E., & Karlene H. Roberts(1993), Collective mind in organizations: Heedful interrelating on flight deck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357-381.
Weick, Karl E., & Kathleen Sutcliffe(2001), Managing the unexpect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Weick, Karl E., Kathleen, S., & David, O.(2005), Organizing and the process of sensemaking, Organization Science, 16/4: 409-421.
Winter, S. G.(2003), Understanding dynamic capability, Strategy Management Journal, 24(10): 991-995.
Whitehead. A. N(1910). Principia Mathematica with Russe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ehead. A. N(1991). 『과정과 실재』(PR), 오영환 옮김, 서울: 민음사.
Whitehead. A. N(1996). 『관념의 모험』(AI). 오영환 옮김, 서울: 한길사.
Whitehead. A. N(1989). 『과학과 근대세계』(SMW), 오영환 옮김, 서광사.
Whitehead. A. N(2003). 『사고의 양태』(MT), 오영환, 문창옥 옮김, 다산글방.
Whitehead. A. N(1998). 『자연의 개념』(CN), 안형관, 전병기, 이태호, 김영진 옮김, 이문출판사.

[Abstract]

Management of Paradox: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 Contradiction through Contrast-beyond Duality of Stability and the Change

Kim, Young-jin (Gntech Natl. Univ.)

This article reviews the potential of Alfred North Whitehead's actual entity and contrast as a contribution to organization theory. We consider organization theory to consist of three epistemological foundations, which we label equilibrium-based theory, process-based theory and recursivity-based theory. We review critically Whitehead's actual entity theory in relation to each of these three foundations.

There was a long dispute on how to build organization theory through stability and change, or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see how this dispute of stability and change was being proceeded historically. By doing this, this study clarified perspectives of each theory and offered an understanding on exploitation(stability) and exploration(change).

Whitehead's actual entity and ambidexterity of organization theory have to deal with heterogeneous attributes of exploitation(stability) and exploration(change) at the same time.

We suggest that whereas actual entity deviates radically from equilibrium-based theory and deviates significantly from

process-based theory, it holds potential in its complementarity with Luhmann's Autopoiesis theory in providing a promising basis for rerecursivity-based organization.

Key-Words: Paradox, Stability, Change, Actual entity, Contrast.

접 수 일 : 2014년 5월 7일
심사기간 : 2014년 5월 15일 ~ 18일
게재확정일 : 2014년 5월 20일